

나주·화순·순천 '카드형 상품권' 발행

조폐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충전·사용내역 조회 등 편리 결제수단 다양화...상권 활성화 기대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카드형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

나주시는 종이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를 1일 출시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카드상품권 1호 지자체'가 됐다. 나주시는 올해 나주사랑카드 1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6월과 7월 조폐공사-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카드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신뢰·보안성 제고와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썼다.

이날 출시된 나주사랑카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면 거주지 제한 없이 조폐공사 앱(APP) '지역상품권 chak'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역 농협·우체국을 방문해 농협·신한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 가맹점 어디서나 일반 체크카드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앱을 활용해 충전 및 사용내역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인당 한도액은 기존 상품권과 동일한 월 70만원이며 충전금액 10% 할인과 소득공제 30% 혜택도 적용된다.

나주시는 카드상품권 발행을 통해 종이형 상품권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기관 임직원과 직장인, 청년층 등 이용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종이형 상품권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상품권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비롯해 상품권 발행, 판매비용·환전 수수료 절감, 휴대성, 판매대행점 업무 간소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카드는 코로나19 장

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 발급에서부터 충전, 잔액 확인, 사용내역 조회 등 편리해진 나주사랑카드로 착한 소비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다.

화순군도 조폐공사와 손잡고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달 26일 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카드형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카드 제작, 화순사랑카드 신뢰성·보안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화순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홍보 마케팅에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시도 지난 6월 조폐공사와 순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한 카드형·모바일형 순천사랑상품권을 9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민수·조성수·김은중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1일 카드형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를 출시했다. 화순군도 지난달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카드' 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자 노트

장성군, 코로나 확진 사실 감출 일인가



김용호
제2사회부 차장

코로나 청정지역 장성의 공든 탑이 무너졌다. 지난 31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다. 감염병의 특성상 완벽한 차단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도시와 인접한 장성에서 지난 6개월동안 '철벽 방역'을 이룬 것만도 대단하다.

하지만 결국 터졌다. 첫 확진자 발생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할 지라도 방역당국인 장성군의 대처는 아쉬움을 넘어 안타깝다. SNS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지역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식도 순식간에 퍼진다. 허물며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의 지역 확진 소식은 더할나위 없다. 그런데도 장성군은 느슨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감춘다고 감춰질 일 이던가.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장성군청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군청이 섰다는 얘기도 긴급안내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당시 장성 지역민들은 무방비였다. 보다 못해 A 면장이 이날 오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

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장성군청 여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룡 ○○단지 회사 직원 1명도 코로나19에 감염돼 111명의 직원이 자가격리 됐다. 이 중 31명은 장성군 전 지역에 거주 중인 군민이기 때문에 면민들께서

의외를 자제해주시고 마을 내에서는 어울려 계시는 것도 당분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A면장은 "면사무소도 군청도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거듭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회사 직원 확진자는 광화문집회 참석자로 그동안 동선을 숨기며 활동하다 일가족 4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면장은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사안이 너무 엄중해 면민들에게 안전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은 SNS를 통해 광주에까지 전파됐다. 장성지역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장성군은 쉬쉬했다. 오후 4시11분께야 장성군은 안내문자를 보냈다. "황룡 ○○단지 근무자 장성군내 이동통신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장성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확진자가 동료와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장성군이 안전문자를 통해 "이동통신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주민은 "장성군이 확진자 동선 파악을 못한 것인지, 감추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감염병 차단은 방역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지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관건이다. 이는 상호 신뢰에서 출발한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장성군의 대처가 안타깝다.

/yongho@kwangju.co.kr

30년 된 6층 아파트에 승강기 설치

나주시·LH, 용산주공1차 시설 개선 내년 1월 착공...입주민 생활 불편 해소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30년 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된다.

나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용산주공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1991년 건립된 지상 6층 5개동, 총 288세대의 소규모 단지다.

입주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지만, 지난 30년간 승강기가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

승강기 설치하는 나주시가 지난 1월 용산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승강기 설치 LH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건의를 적극 수용한 LH는 이 아파트 5개동별 15인승 승강기 설치 및 복도 연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6억원 규모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LH



는 연말까지 승강기 설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착공해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5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생활 여건을 고려한 승강기 설치 건의를 흔쾌히 수용해 준 LH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집중호우 피해 주택·시설물 화순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화순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유실·전파된 주택의 지적 측량은 측량 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해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 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지역 어르신 위해 써달라" 장흥전기 640만원 기탁

장평면 32개마을 식기살균기 설치

김장규 장흥전기 대표가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640만원의 지정 기탁금을 장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문)에 전달했다.

이 기탁금은 후원자의 뜻에 따라 장평면 32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식기살균기를 설치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 중으로 각 마을에 식기살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전기는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 아동 공부방 환경 개선 등 지역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및 재능기부를 해왔다.

문병욱 장평면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김 대표의 후원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김장규 장흥전기 대표가 장흥군 장평면 32개 마을에 식기살균기를 설치해달라며 640만원의 후원금을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장흥군 제공>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